

제공일자	2015. 9. 15(화)	담당자	임준환 선임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3775-9115)	연락처	3775-9028, 010-8913-0223 총 3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뉴-노멀시대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세미나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9월 16일(수) 오후 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「뉴-노멀시대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」 세미나를 개최하였음.
-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금리 및 저성장의 고착화, 재무건전성의 강화, 고령화, 정보통신기술의 발달, 보험시장구조의 성숙 등의 환경변화 속에서 보험회사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음.

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

-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「뉴-노멀시대하에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」을 주제 발표하였음.
-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, 자본규제 강화, 고령화, 보험산업의 성숙기 진입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고 있음.
 - 이러한 환경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경영행태를 답습하면 국내 보험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정체될 수밖에 없음.
- 임준환 선임연구위원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중장기적 관점의 성장전략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제시하였음.
- 먼저, 환경변화로 보험회사의 경영목표, 성장동인, 손익구조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.
- 경영목표는 시장점유율 확대 중심에서 장기 이익 제고 중심으로,

- 성장동인은 동질적 상품에 대한 규모의 경제 추구에서 마진을 중시하되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규모의 비경제 해소 및 범위의 경제 추구로,
- 손익 구조 측면에서는 비차익 중심의 불균형한 손익 구조에서 위험률 차익 중심의 균형 잡힌 손익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함.
- 생존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강화와 상품개발 및 가격결정, 언더라이팅, 판매채널,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효율화 전략을 제시하였음.
-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익 창출을 통한 이익잉여금 확보로부터 자본금을 확충하고, 이를 토대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사업의 역량 강화를 제시함.
- 중장기 성장전략으로는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관리사업 강화, 변액연금상품의 수수료 부과체계 다양화, 해외진출 방안을 제시함.
- 자산관리사업 강화는 보험회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이며, 변액연금상품의 후취형 수수료 부과체계 도입은 타금융권대비 경쟁력 제고, 해외진출은 저수익환경 극복을 위한 돌파구임.

더불어 보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

-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합한 규제 개선이 병행될 때만이 경영전략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.
- 보험규제 개선방안으로 보험 가격자유화, 자본금조달 제한 규정 폐지, RBC 지급비율 산출 시 지역적 분산효과 인정이 있음.
- 보험 가격자유화는 고객에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, 자본금조달 제한 규정 폐지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, 지역적 분산효과 인정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임.

저성장시대 보험회사 비용관리 중요성 대두

-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김해식 연구위원은 「뉴-노멀시대하에서 보험회사의 비용관리」를 주제 발표하였음.
 -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최근 3년간 사업비율은 3%p 하락하였으며, 그 원인을 저성장과 채널변화에 따른 판매비의 감소로 분석함.
 - 특히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경상비 효율성의 개선 여지가 있으며, 그 대안으로 아웃소싱 영역 확대, 보험상품 수 축소, 효과적인 정보기술 활용, 그리고 지속적인 비용관리의 필요성을 제안함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